

중남미 발명(?) 500 주년을 맞으며

- 문학과 사회의 흐름 -

안 태 환 (한국외대, 중남미문학)

1. 들어가는 말

익히 역사에서 배운 바대로 우리는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에 의해 중남미 대륙이 발견됨으로써 중남미가 존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로 맞게되는 중남미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페인 및 중남미 각국들은 여러가지 공식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남미 및 스페인의 일부 지식인, 예술가들은 반론을 펴고 있다. 또한 500주년 반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중 파라과이의 소설가로 스페인의 유수한 문학상인 세르반테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중남미 발견 500주년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스페인 및 중남미 사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흐름이 열기를 띠고 있다. 특히 '경축'과 '기념'을 구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더구나 걸프전 이후 '신질서'의 이름아래 초강국의 부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가뜩이나 억눌리고 뒤쳐진 민족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시점이다. 중남미 발견은 성스러운 서구 기독교의 이름으로 넓은 지역에 정착해서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낯모르는 민족들을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평정하고 노예화시킨 것에 다름아니다. 스페인의 약 300여년에 걸친 식민통치 기간 동안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 왕실의 법령은 식민 지배체제를 인간적으로 완화시키는 경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잔존해 있던 원주민들은 결코 식민지의 인적·물적 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특히, 정복과 식민화가 몰고 온 원주민 문화의 절멸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이다.¹⁾

이와 같은 비판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성들은 스페인의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의 뿌리를 찾고 있다. 스페인의 중세는 이교

1) Augusto Roa Bastos, "El controvertido V centenario", El país, Madrid, 1991. 9.30.

도, 즉 아랍세력과의 기나긴 전쟁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기독교 문화의 절대적 우위성, 도그마에 빠지는 공식문화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르네상스의 기운-자유를 추구하는 비판적 인간중심주의 문화-또한 강력한 흐름을 견지해 왔으나 종교 재판 등의 탄압에 의해 인본주의 문화는 지하로 숨어들게 된다. 로아 바스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에라스무스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인본주의는 스페인 왕정의 절대주의와 계속해서 충돌해 왔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또한 중남미를 정복하러 떠난 새로운 기사들을 풍자하고 비꼬고 있는 것이다.²⁾

여기서 우리는 중세와 르네상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즉, 중세는 암흑시기요, 카톨릭적 근엄성, 금욕성만이 부각되고 르네상스는 그에 대한 안티테제로 종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자유가 추구되는 시기라는 이분법 말이다. 바흐젠이 라블레를 연구하면서 강조했듯이, 중세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민중문화, 구어 문화가 카니발적 웃음과 풍자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자유를 추구하던 현실 비판적인 문화가 있었고 이같은 에너지가 결국 공식문화 엘리트 문화에까지 분출된 것이 르네상스라고 인식된다. 즉 중세와 르네상스는 단절이 아니라 역동적, 변증법적 연속인 것이다. 이같은 카니발적 웃음, 비판의식이 현실세계에서 계속 좌절되는 상황에서의 세계관인 바로크적 구조의 대작이 바로 『돈키호테』인 것이다. 결국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의 연속적 흐름에 단절이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중반 ‘고전주의’의 등장 이후일 것이다. 이점에 대해 시사하는 글을 인용해보자.

17세기 중반까지는 사회공간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비이성적인 형태와 광태가 이제 갑자기, 그 이전까지 나환자들을 수용하던 수용소에 감금되면서, 사회에서 추방되고 배제되고 감금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런 감금과 감시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 이전까지는 기사도 소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소설, 몽테스키외의 수상록, 에라스무스의 광기 찬가 같은 글에서 광기가 죽음과 함께 존재의 기본적이고도 깊은 체험을 형성하였고 언어의 심연적인 힘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갑자기 나환자들을 수용하던 감호소에 광인들이 감금된다.³⁾

2) Ibid.

3) 김 진석, “광기의 역사와 역사의 광기”, 『문학과 사회』, 1992년 여름호, 409쪽

그러나, 로아 바스또스는 중남미 발견 500주년 행사를 평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이 주최하는 중남미 발견 500주년 행사에 평면적으로 거부만 하는 것은 중남미 메스티조 엘리트의 애매한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현재도 엄청난 짐을 지우고 있는 또 다른 제국에 대한 의식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4)

중남미 현대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 문학작품들의 이데올로기는 보수, 진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나 공통적인 흐름은 민족주의라는 것인데, 이런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싹튼 것이 아니라 독립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지속된 서구(영국, 홀랜드 등),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남미 지식인들은 그것이 구호적 반미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에 보다 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현재에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아 바스또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같은 비극적 역사를 제대로 기념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에 있어 중남미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세력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단합을 이루는 데 있다. 중남미 민중의 주권, 자주, 동질성은 진정한 경제, 사회의 발전위에 기초하여야 하며 새로운 민주질서의 건설은 반드시 원주민 및 소외된 소수 그룹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질서는 현재 중남미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사회의 요구의 구체화로 다양하고 다문화적이고 진정한 대의제를 뜻한다.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우리 중남미인들은 가능성이 풍부한 공동체 구성에 적극적으로어야 할 것이다.5)

독립이후 본격적인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중남미는 동질성 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겪어왔으며 이 정체성의 탐색은 중남미 문화의 기본 동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관념적, 추상적, 이상학적 태도를 많이 보여 왔으나 로아 바스또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성들은 중남미의 미래의 비전제시에 있어 구체적으로 원주민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의 추구라는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Augusto Roa Bastos, *op.cit.*

5) *Ibid.*

2. 중남미의 발명(?)

16세기초부터 시작된 스페인 제국의 중남미 정복의 목적은 귀금속의 획득이었다. 툴리오 할페인 동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의 하나에 의해 지배된 거대한 제국의 수수께끼중에서 정복자들을 움직였던 동기는 귀금속의 탐험이었다. 특히 멕시코부터 페루에 이르기까지 금과 은을 주로 스페인으로 실어 날랐다.⁶⁾

스페인은 자국의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귀금속을 스페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광산에서의 강제노동(*la mita*)에 투입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은 배부르게 되었으며 중남미 정치, 경제의 전형인 풍요로움과 비참함의 공존이 싹트게 되었다. 스페인은 원주민들의 자연 공동체 조직을 착취를 위한 집단화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페인 본국 정부와 초기 정복자들 및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주들 사이에 점점 줄어드는 원주민 노동력의 확보를 두고 이해 관계가 상충되게 되었다. 따라서 광업에 비해 이차적이었고 인력이 덜 필요한 목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원주민식의 공동체 대신에 개인 지주가 운영하는 농장이 확대되어 갔다. 농민들은 엄청난 빚 때문에 지주와의 노예적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다.

중남미 발견의 정치·경제적 동인은 유럽이 아랍세력에 의해 독점지배되는 동양과의 교역 루트를 새로이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즉 중상주의적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특히 터키에 의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발칸 반도와 흑해가 완전히 터키의 영해가 됨으로써 유럽의 항해권과 통상이 크게 위축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 다른 요인은 유럽의 과학 기술의 발달, 특히 선박 건조술, 나침반 등 항해술의 발달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15세기 유럽의 봉건체제의 위기 때문이었다. 위기에 처한 경제에 새로이 정복, 편입시킬 인구와 영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유럽에서도 봉건적 경제 체제와 새로이 대두되는 상공업 체제와의 마찰이 특히 심했던 스페인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컸던 것이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봉건적 구체제가 계속 무리하게 유지되면서 경제적으로 극도로 빈한하게 된 하급 귀족

6) Tulio Halperín Donqui, *Historia Contemporanea de América Latina*, Alianza, Madrid, pp.11-12.

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으며 사회의 모순은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정복지를 획득하기 위한 모험이 절대 필요했다. 이같은 정치·사회적 배경이 『돈키호테』(1605)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즉 중남미 원주민을 살해하고 금, 은 등 각종 귀금속을 스페인 본국으로 가져오는 일을 주임무로 삼으며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만드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러 출정하는 기사를, 또 절대왕정하에서 경직될 대로 경직된 위선적인 스페인 사회를 철저히 풍자하는 작품이 바로 『돈키호테』인 것이다. 스페인 본국에서도 상공업 계층을 이루던 유대인들에게 스페인을 떠나든지(1492년에 약 40만명의 유대인을 추방했음) 아니면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면서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위해 애를 썼던 것이다. 중남미에 가서 원주민을 살해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는 이미 본국에서 이교도(유태교, 마호멧교,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종교재판 혹은 마녀 사냥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기독교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1492년 아랍의 마지막 거점 그라나다를 함락시킬 때까지 수백년간 스페인에서는 아랍 세력에 대한 재 정복이 진행되었다. 이 재정복은 중세 스페인에 존재했던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기독교, 이슬람교, 유태교의 공존)을 없애기 시작했다. 재정복이 진행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13세기 말에는 아랍 세력은 그라나다 왕국만 남았고 14세기에는 유대인의 학살이 시작됐다. 이로써 열린 사회가 닫힌 사회로 진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종교재판이었고 따라서 스페인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이같은 종교적 폐쇄성의 근저에는 정치적이유가 숨어 있었다. 다름아닌 구 귀족층의 기독교 보호 때문이었다. 즉 유태교도들이 상당수 개종을 통해 새로이 귀족층으로 속속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다. 여기에 1482년부터 종교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있었다. 종교재판은 결국 전통적인 봉건 귀족층의 상업 자본을 대표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에 대한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써 스페인의 전 사회가 하층 계급에 이르기까지 귀족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모두 내재화한, 따라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계급 갈등을 겪지 않는 단일 색깔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귀족에로의 편입은 계속되어 빈곤한 하층 귀족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스페인 역사는 전투로 계속되는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스페인에게 있어 중남미의 발견은 카스티야의 지배 계층에게 숨통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복지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중남미의 발견은 스페인의 지배 계층의 보수적, 복고적인 권력 체제의 강화를 가져왔다. 즉 국가가 중남미와의 무역을 완전 독점했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은 국부(금, 은, 보화)를 가져오는 원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되

었다. 그러나 유태인이 추방된 후, 이들이 담당했던 금융 및 상업은 이를 다룰 사회 계층이 없어 자연히 외국의 금융, 상업 세력의 침투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이태리인들이 이를 맡았으며 스페인 왕실은 외국의 자본가들의 용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결국, 스페인은 15, 16세기를 통한 유럽의 문예 부흥과는 반대의 문화적 흐름, 즉 근대성을 거부하고 보수적인 전통주의만을 고집함으로써 서구 여러나라에서와 같은 시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문학에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민요와 기사 소설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 나타났던 것이 『돈키호테』였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스페인 내에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지식인 등의 사회 그룹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의 발견으로 스페인은 국내의 상공업 자본을 억누르면서도 엄청난 영토와 노동력, 금, 은 등의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세금으로 겨우 살아가던 상당수의 가난한 귀족들도 중남미로 진출하여 대농장의 소유주로 변신하게 되었다. 국내 상공업의 위축은 영국, 홀랜드의 상공업을 발전시켜 이들의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후에 스페인이 이들에 의해 세계적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민주화 또한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원주민들로부터 약탈해 온 금, 은, 보화는 전부 외국의 산업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중남미를 정복할 때 다수의 원주민들을 학살했음은 물론이다. 에두아르노 갈레아노는 “정복자들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7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약 1세기 반 뒤에는 전부 합해서 오직 350만명 정도로 줄어 들었다.”고 언급한다.⁷⁾ 이같은 엄청난 인구 감소가 전부 살상 때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복의 결과였음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로써 토지, 부,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적인 식민지 봉건체제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스페인 왕실은 중남미에서 가져온 금, 은 등 재화를 철저히 투기화해서 몇배의 이익을 남기고 되팔곤 했다. 식민 기간 동안에도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강제 노동을 금했으면서도 실제로 엄청난 비인간적인 노동을 특히 광산등에서 강요했던 것이다.

7) Eduardo Galeano,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Bogotá, siglo XXI, p.59

3. 정체성의 혼란 시대(19세기초 독립후 1940년대까지)

앞에서 본 학살, 약탈, 착취의 비극의 역사는 수백년이나 계속된 식민지 시대 동안 퇴색되어 갔고 철저히 화석화되면서 중남미인들의 의식에서 정체성, 역사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첫째, 원주민의 언어 및 종교의 탄압과 말살, 둘째, 주로 백인과 원주민 사이의 철저한 혼혈로 메스티조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생긴 원주민들과의 혈연적·정서적 유대감의 단절, 셋째, 진보적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철저한 서구 지향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지향한 가치관은 진보적 역사관, 자유주의, 직선적 시간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후 중남미의 정치, 사회는 내전, 폭력, 독재 등 혼란을 계속 연출했고 교육받은 대중의 부재 등으로 미쳐 예술의 형상화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특히, 소수의 지식인들과 교육 못 받은 대중사이의 엄청난 심연이야말로 스페인의 정복이후 중남미 문제의 핵심이다. 19세기에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문맹율은 80% 이상이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작가들이 유럽에 망명하길 원했다. 자기들 나라에서 고립되는 것보다 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남미에는 도시를 중심한 서구 지향의 소수의 문화와 과거에 뿌리박은 구어적 성격의 강인한 농촌 문화의 이중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믿는 경향은 이미 식민지 시기 동안 확립되었으며, 독립후 반스페인 문화운동이 나타났지만 이는 스페인 문화가 지나치게 전통, 보수적이고 근대화되지 못한 점 때문이지 서구 문화 추종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프랑스 문화를 선호하였다. 이같이 서구화된 의식을 가지고 이들 소수의 지식인, 예술가들은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비판, 경멸하였다. 이처럼 중남미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든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아르헨티나의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1811- 1888)를 들 수 있다. 그는 「문명과 야만」(184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시의 사람은 유럽식 옷을 입고 문명된 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로부터 빠져 나오면 모든 것은 바뀐다. 농촌 사람은 다른 옷을 입고 다닌⁸⁾ 또는 초원은 목동들과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야만의 본거지인 데 반해 대도시들은 문화와 진보의 중심지이다.⁹⁾

말하자면 원주민 = 야만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

8) Jean Franco, *La cultura moderna en América Latina*, México, Grijalbo, p.20.

9) Jean Franc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Barcelona, Ariel, p.78.

간이 흐르면서 서구적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에서 깨어나 차츰 중남미의 현실(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중남미는 각국의 정치, 역사적 체험이 다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 의식이 소설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폭력이 심했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경우 야만적 폭력이 넘치는 밀림을 통해 공포에 찬 현실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의 소설 『소용돌이』(1924)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서구의 전통적인 사실주의 기법을 따르고 있다. 직선적 시간 구조, 세밀한 사건 전개, 묘사 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현실은 정치, 사회적인 현실이 아니라 밀림이라는 자연에 국한시킴으로써 타자적 시각에서 중남미를 바라볼 뿐 만 아니라 야만적인 자연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은폐 내지는 합리화시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888년 니카라구와의 루벤 다리오(1867-1916)의 『푸름』이라는 시가 발표되면서 본격화 된 모더니즘 운동은, 대략 1920년대까지의 시인들을 통칭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기존의 사회 질서 붕괴,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등으로 인한 불안한 상황속에서 중남미의 소수의 지식인과 예술가들, 즉 여유있는 계층이 유럽 취향의 미학을 강조하며 당대의 역사, 사회적 모순과 긴장을 감추려는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대의 타부였던 “문명과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의 반역과 거부 의 몸짓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경도되었던 것은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 프랑스 시였다. 이같은 유럽 문화의 영향은 곧이어 아방가르드 문학이 중남미 시에 접목되면서, 1920년대 이후 중남미 문학의 현대성이 시작된다. 즉, 어떤 이즘이나 틀로 분류될 수 없는 개성있는 실험적 시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중 특히 초현실주의적인 흐름이 계속 중남미 문학의 줄기를 이루는 데 이정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이다. 그는 1923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정』이라는 시집을, 1925년에 『이단 심문』이라는 제하의 에세이집을 발표했다. 보르헤스는 중세부터 존재해왔으나 서구 문화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왔던 하나의 낭만적 철학 흐름 - 직선적 시간관 및 진보적 역사관의 거부, 주술적, 비의적, 반기독교적 이상주의, 또한 합리성, 사실주의 거부 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표출이 중남미의 작가에게서 나타났는가? 첫째, 1920년대 이후 유럽의 전위문학의 영향으로 반사실주의 경향이 팽배해 있었고 둘째, 이성적 사실주의에 근거했을 때 서구의 주변에 지나지 않는 아르헨티나가 30-40년대에 비교적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소수의 지식인 유탄 계층의 관념적 우월감을 표시하고 있고, 셋째, 1930년대에는 보수주의 정권이

존재했고 40년대는 극우의 또 다른 변형인 선동적인 '민중주의'가 페론에 의해 주도되던 때로서 반지식인적 분위기에서 현실에 절망하고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보르헤스가 증남미 현대 문학, 그중에서도 불소설에 끼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보르헤스의 단편을 읽고 예를 들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읽으면 양자의 유사성에 놀라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들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반합리주의, 순환적 시간 구조 및 미로와 같은 애매성을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¹⁰⁾ 포스트모더니즘과 증남미 문학을 연결 지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복잡한 중간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르헤스와 마르케스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큰 우를 범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자체의 광범함, 복잡함, 위험스러움을 드러낸다. 특히, 보르헤스를 제 3세계적 시각의 탈식민주의 문학¹¹⁾의 전형으로 얘기하는 것에 반발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불교적, 동양적 순환의 시간관에 익숙해 있으므로 보르헤스 등의 순환적 시간구조에 공감하기가 쉬우나 이 때에도 양자를 철저히 비교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 10) 정 정호,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문학』, 글, 이 상금, “기법의 자유로움 혹은 정신의 자유로움”, p.151.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문학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로 남미의 보르헤스나 베케트가 미국의 대표적 포스트 모더니스트에 의해 꼽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 3세계적 상황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줄여서 말한다면 60년대 특별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제 3세계적 상황의 유사성을 직접 체험한 데 있다. 미국의 존 바스의 ‘고갈의 문학’도 바로 이러한 상황의 체험과 의식의 산물의 산물이었다. 이밖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든다면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귄터 그라스의 『개의 해』 등이 있다.” 필자는 증남미 소설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겠다. 필자는 증남미 소설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홀리오 꼬르파사르에서 찾고 있다.
- 11) 김 성근,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년호 여름호, 13쪽. 빌 애쉬 크로프트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용어를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쟁취한 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과정의 피해를 본 모든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르헤스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면, “구어중심의 편협한 토속주의가 아르헨티나 문학전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과거 ‘모국’의 문학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가 고찰하고 있는 제 3의 전통인 서구 문학이라는 틀 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인용에서 탈식민주의로 보르헤스를 조명하는 논리적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정체성 탐색의 시대 (2차대전후~1960년대)

2차대전이 끝난 후, 50-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전전까지의 낙관적 합리주의, 진보적 역사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는 중남미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그 때까지의 사고를 뒤흔드는 상황을 가져왔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지녀왔던 낙관적 합리주의의 속물적, 허구적 성격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 관념체계와 구체적 현실 상황의 엄청난 괴리는 오히려 서구 지식인들보다도,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 및 언어 소통에 대한 환멸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작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흐름을 선도한 작가는 아르헨티나의 훌리오 꼬르타사르(1914-1983)이다. 이같이 속물적인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이 훌리오 꼬르타사르에게서 높은 것은, 아르헨티나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제 3세계에 속하면서도 가장 유럽화된 중남미 국가로 정체성의 위기가 상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 『팔망놀이』(1963)에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소설 기법과 형식이 여지없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선적인 서술 구조, 언어의 유의미성이 무시되고 줄거리의 해체로 유희성을 회복하고, 시적인 가치의 고양을 통해, 인간성의 새로운 탐구 등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다.

2차 대전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중남미 경제는 50-60년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허약한 산업 기반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중 잠시 전쟁 특수로 인해 1차 산품 수출의 일시적 호황을 누렸을 뿐이다.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중남미가 갖는 주변적 역할의 역사성 및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 위기 의식을 대표하는 중남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1960년대초에 등장한 종속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상품의 국제 교역의 불평등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두아르도 갈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남미의 석유, 철, 구리, 육류, 열대 과일, 커피등 1차 산품 및 식품들은 그것들을 생산해 내는 중남미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소비하면서 더 많이 버는 부유한 나라들에게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계속 공급된다.¹²⁾

이같은 중남미 지식인들의 서구 선진국들에 대한 피해의식은, 종속이론의 이론적 유효성 논의 여부를 떠나, 오늘날까지 중남미 대중들의 의식 저변에까

12) Eduardo Galeano. *op.cit.*, p.1.

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중남미 현대사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으로 1959년에 성공한 쿠바의 사회주의혁명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그후 60년대 중반 서구의 진보적 학생운동 등과 맞물리면서 중남미의 일부 지식인들에게 급진적 좌경화 및 강한 현실비판의식을 드러내게 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에 대한 반동으로 70년대에 강경 군사독재가 등장한 것 또한 필연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중남미 문화에 확립된 것은 강한 민족주의 의식이었다. 60년대의 중남미 정치현실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은 몇 백년간 지속되어온 역사적 모순, 사회적 불평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서구 지향의 환상만으로 역사가 진보할 것으로 믿었던 이전의 중남미 지식인들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를 뜻했다. 이같은 비판의식 및 절망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 '봄소설'이라고 일컫는 중남미 현대소설이다. 이 소설들은 서구에서 비평가 및 독자들에게 크게 히트하는 붐을 일으킴으로서, 70년대에 걸쳐 중남미 연구의 붐을 조성했고 노벨문학상도 다수 중남미 작가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스페인의 정복시기에 중남미의 금, 은의 유입이 붐을 이루었듯이 이번에는 중남미의 예술작품들이 유럽에 붐을 이루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작품들이 세계의 문학 비평계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작품형식의 변화는 작품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1920년대 이후 서구에서 계속 발전되어온 문학연구 방법론의 큰 명제를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담하고 개성적 형식의 실험들이 추구되었다. 봄소설의 예를 들자면, 훌리오 꼬르타사르의 『팔방놀이』(1963), 까를로스 후엔페스의 『가장 투명한 지역』(1958),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1967),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도시와 개들』(1963), 환 룰포의 『빠드로 빠라모』(1955),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포스의 『나 최고』(1974), 호세 도노소의 『밤의 음란한 새』(1970), 호세 레사마 리마의 『빠라디소』(1966), 기에르모 까브레라 인판페의 『세마리의 슬픈 호랑이들』(1970)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예술적 도그마를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몇가지 두드러진 형식상 변화를 살펴 보면, 첫째, 전통소설을 대표하는 직선적 시간 구조의 포기과 현실의 복합 다층적인 구조의 반영, 둘째, 전통소설의 사실주의 묘사의 퇴조와 상상적, 시적, 상징적 표현의 강세, 셋째, 전지적 화자의 퇴조와 다양하고 애매한 화자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봄소설들은 중남미 역사, 사회의 현재, 미래에 대해 엄청난 비판과 절망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봄소설을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대략 세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르헤스로 대표되는 흐름으로 형이상학적, 신비적,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

여주는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코스모폴리탄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들뢰즈, 환 톨포, 가르시아 마르케스¹³⁾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점에서 보르헤스적인 신화적, 형이상학적 의미해석과 연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출발점이 총체적 현실 인식으로부터 나온, 즉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흐름으로 아마도 백낙청 교수가 명명한 '포스트모던 리얼리즘'¹⁴⁾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포스로 대표되는 흐름으로, 앞의 두 흐름이 절망적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데 비하여 원주민의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어성 문화특유의 낙관성과 강인한 현실 개혁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미학적 개혁으로 소설형식의 전면적인 혁명적 변화를 보여주며, 메타픽션-포스트모더니즘 또는 진정한 '포스트모던 리얼리즘'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얘기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거론하며 현실과 환상의 무차별성을 강조하며 현실해석의 신화적, 환상적, 형이상학적 접근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작품의 치밀한 분석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 작품 해석의 관건은 엄청난 정치 폭력, 역사적 사실의 조작, 대중의 엄청난 망각에 대해, 일부의 지식인 그룹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절망으로부터 생긴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 다만 이같은 열쇠를 최대한 작품속에 감춰둠으로써 보물찾기의 재미를 갖게 구성한 형식의 난해함, 다양함이 직선적인 종래의 리얼리즘 소설들과는 판이하게 구별된다. 현대 중남미 소설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남미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다. 이것이 복잡다양한 형식의 실험, 탐색, 또는 절망적인 여정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5. 정체성 비전의 시대(1980년대 이후)

1970년대는 중남미에 있어서 고통과 혼란의 시대였다. 독재정권들에 의해 인권탄압 및 문화계 억압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시기에 획기적으로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상당한 정도로 중산층도 두터워졌다. 이로써 이들 자유지향적

13) 이들 소설에서는 지그재그식 시간구조와 복합, 다층적인 시·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직선적 시간구조를 거부함으로써 기만적인 낙관주의를 용인하지 않으며, 지그재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진보와 좌절의 혁명적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백년 동안의 고독』의 경우, 역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작품 전체의 파괴의 이미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고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원주민 문화의 건강성이 고립되고 말살되려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4) 정 정호, 앞의 책, 14쪽.

인 생활문화를 가진 시민들의 힘에 의해 1980년대에 들어서 점진적으로 중남미 각국들은 민선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즉, 좌익 폭력투쟁 세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건한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9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사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 1980년대는 각국이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나, 그 결과는 당장은 신통치 않게 나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백년 동안 쌓였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암적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중남미의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의 언론인이자 지식인인 호르헤 차일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난주(1991, 7월말) 정치학 국제학술회의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려 2,000명 이상의 분석가들이 모여 세계정세 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맑시스트, 신자유주의적 틀의 무조건적 추종과는 달리 이번 회의에 모인 학자들은 중남미 대륙에서 경제발전 및 사회적 균형의 실질적 가능성에 관해 새로운 모색의 준거를 세우는 데 90년대에 있어 새로운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의 장래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했다. 오스왈드 순켈의 경우 “오늘날, 중남미의 사회적 소외현상은, 인종분리 정책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웨르난도 엔리케 가르도소의 경우, “부의 공정한 분배 및 사회적 균형을 고려함이 없이는 결코 경제발전을 구체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¹⁵⁾

이에 따라, 페루 등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 최근까지도 게릴라 활동이 심했던 나라들에서도 게릴라들이 총을 버리고 합법적 의회투쟁에 진력하여 콜롬비아의 경우, 1991년에 개헌 특별의회가 구성되어 민주적 개헌의 쟁취 및 보수 양당제의 틀을 깨는 등 괄목한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의 원인에 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만, 이것의 해결책과 중남미가 지향해야 할 비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각국의 구체적 역사, 사회환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구도는 맑스-레닌주의 유로 코뮤니즘/사회민주주의로 다원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 좌파가 1960년대 이래 추구해왔던 라틴 아메리카 혁명의 대륙 혁명적인 성격과 제 3세계적 지향

15) Jorge Child, “América Latina y el mundo”, El espectador, Bogotá, 1991.8.1.

점차 퇴색해가면서 오히려 '유럽화'의 길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¹⁶⁾

위 인용은 우리나라의 신진 정치학자의 글로서 중남미의 현재의 변화의 흐름을 상당히 잘 읽고 있다고 본다. 치열한 경제 블록화와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전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중남미는 느끼고 있고 지난 시기에 있었던 급진 폭력 혁명에 대한 환상도 사라지고 있다. 대립되는 세력 사이의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지식인, 예술가들은 작품활동을 통해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같은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가로 파라과이의 소설가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또스를 들 수 있다. 대표작 『나 최고』(1974)에서 그는 스페인어 문화와 파라니어 문화의 병렬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중적 긴장감을 불러오면서, 메타 픽션으로서의 소설 형식의 혁명적 변화(개인적 글쓰기→집단적, 구어적, 원초적 생산)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적 통합이라는 중남미의 미래의 비전을 유토피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20여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주민 문화, 파라니어의 생명력이 강하여 이중 언어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는 파라과이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같은 비전 제시와 관련하여 흥미를 끈다.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또스의 소설 『나 최고』에서는 작가가 편집자의 목소리를 빌어 소설을 개인적 창작이 아닌 구어적, 원초적인 집단 생산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써서 대중에게 던져진 책과 대중 자신이 만들어 내는 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후자의 책은 그것을 받아쓰게 한 그 민족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나 최고』, 46)

또한, 백인 문화와 원주민 문화의 대등한 대우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연결지어, 소설 장르의 다양한 실험정신 또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설, 시, 연극, 논문, 전기, 역사 등이 모두 용인될 수 있는 독특함을 소설 『나 최고』는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 대해 장 프랑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으로써 상기소설이 이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날,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철학자, 인류학자, 역사가들이나 문학비평가들에게나 똑같다. 따라서 오늘날 문학비평은 몇몇 텍스트의 분석 및 이해의 수준을 넘어 문화비평에 이르고 있고 전

16) 이 성형,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서울, 까치, 230쪽.

통적으로 가져온 '문학성'의 개념에 회의하고 비판하고 있다.

6. 결론

좌·우의 격렬한 대립이 가져온 희생과 대가 위에서 평화적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남미는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선입관으로 가져왔던 중남미가 아니다. 중남미, 곧 못 사는 나라, 외채부담, 빈부격차, 종속이론, 해방신학, 군부독재, 인권탄압 등의 온통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의 용감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 중남미이다. 이같은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미 미국 및 서구에서는 그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된 현대소설을 두고 볼 때, 인간의 소외 및 속물화에 대해 관념적인 사색의 지적 놀음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남미 현대 소설은 비참한 가난, 억압의 다양한 측면들을 중남미만의 문제의식이 아닌 서구 선진 사회의 그것까지 포괄하여 생명력 있는 실험정신을 통한 인간화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역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치열한 대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리얼리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곡된 소화였을 망정, 19세기에 벌써 서구의 첨단 자유주의 사상이 도입되었고 그리스, 로마문화의 유럽적 전통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 합리주의, 다양성의 존중 등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지식인, 예술가들은 제 3세계의 어려움과 부딪히면서도 서구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예술적 형상화에 성공해 왔던 것이다. 특히, 계속 억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문화의 견고한 존재(약 400개 언어, 인구 약 4,000만명)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기본적 방향타 구실을 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경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평화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데 대한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단,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 작품에서의 낙관적 비전이 구체화될 21세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대 지평위의 과제, 즉 다양성의 강조와 공동체의 구축은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Al cumplir el Quinto Centenario de la Invención(?) de la América Latina

-Corriente dinámica de la literatura y la sociedad-

Ahn, Tai-Hwan

Todo el mundo sabemos que Cristóbal Colón descubrió la América Latina en 1492 bajo el patrocinio de la reina de España, Isabel. Este año, en España y casi todos los países hispanoamericanos se han celebrado muchos eventos culturales conmemorativos del Descubrimiento. Mientras tanto, bastantes intelectuales y artistas españoles e hispanoamericanos lo han criticado pensando aún en contra-eventos del Descubrimiento y uno de ellos es Augusto Roa Bastos, novelista paraguayo galardonado por el Premio Cervantes. Roa Bastos dice:

La proximidad de la fecha de conmemoración del V Centenario d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ha tenido la particularidad de avivar en ciertos medios latinoamericanos una corriente hostil a la conmemoración del histórico acontecimiento. Hay que distinguir bien aquí, antes de seguir adelante, los dos significados de "celebración" y de "conmemoración", porque es tal vez en estos dos vocablos donde está arraigado el malentendido que inficiona actualmente, con más virulencia que nunca, el sentido que se pretende dar a la efeméride en la solemnidad de los programas oficiales, y que tiene su réplica polémica sobre todo en los círculos intelectuales de Hispanoamérica y en algunos de España.(...) Con toda evidencia, la destrucción, el crimen, el despojo, no pueden ser celebrados como hechos ejemplares de la humanidad.

Cuando se mira la historia de América con estas conciencias históricas críticas, se data hasta la Edad Media de España para buscar el origen de la Invención(?) de América. El humanismo español representado por Erasmo, que se había nutrido por la tradición pacífica de convivencia

entre tres tipos de diferentes culturas; judío, árabe, cristiano, no podía menos de hundir abajo del terreno especialmente debido a la Inquisición severa e inhumana. Y así se estableció el régimen absoluto del Imperio Español. Por tanto, se puede decir que *Don Quijote* es una burla del caballero nuevo del Imperio que conquista al Nuevo Mundo. Ahora bien, Roa Bastos no sólo quiere rechazar los eventos del Descubrimiento;

He aquí, para América, el verdadero sentido de la conmemoración del V Centenario: afirmar y consolidar, en primer lugar, la identidad de los pueblos latinoamericanos en el contexto del Tercer Mundo, al cual pertenecer no por destino elegido, sino, por su situación de aislamiento; y en segundo lugar, afirmar y consolidar esta identidad en la unión y alianza con España y Portugal.

Roa Bastos enfatiza sobre toda la igualdad entre las culturas plurales incluso la indígena;

La identidad, autonomía y soberanía de los pueblos latinoamericanos, instauradas sobre la base de su efectivo desarrollo, implica necesariamente la participación de los pueblos indígenas y de todas las minorías marginadas en la construcción de un nuevo orden democrática, pluricultural y pluralista como concreción de la nueva sociedad que está emergiendo en América Latina.

Estas ideas todavía pendular entre lo utópico y lo posible y en algún sentido, se tratará de que recuperaría la convivencia pluricultural como en el tiempo de la Edad Media española. Y lo que pasa es que se llegan también estas conciencias de "diálogo pluricultural" en la esfera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es decir, hay un tipo energético o utópico de "postmodernismo", "metaficción", por ejemplo, lo hallamos en la novela de Augusto Roa Bastos, *Yo el Supremo*, obra estructurada en yuxtaposición n varios niveles culturales, ideológicos pluralistas.

El reconocimiento estético pluralista corresponde también a las corrientes políticas, económicas actuales latinoamericanas; la integración económica concreta, activa del mercado común, la convivencia democrática, pacífica entre las fuerzas políticas tan disyuntivas como hace poco que eran enemigos mortales entre sí.